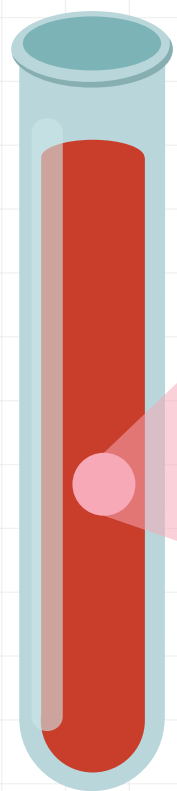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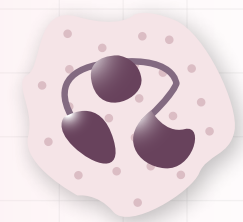
백혈구,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나요?

<백혈구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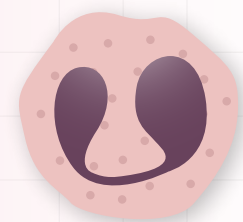
호중구

세균이 몸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을 지키는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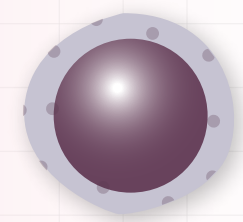
호산구

알레르기 반응과 기생충 감염에 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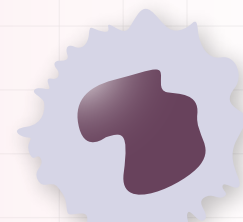
호염기구

알레르기 반응과 염증반응을 매개



림프구

복합적인 면역반응과
염증반응에 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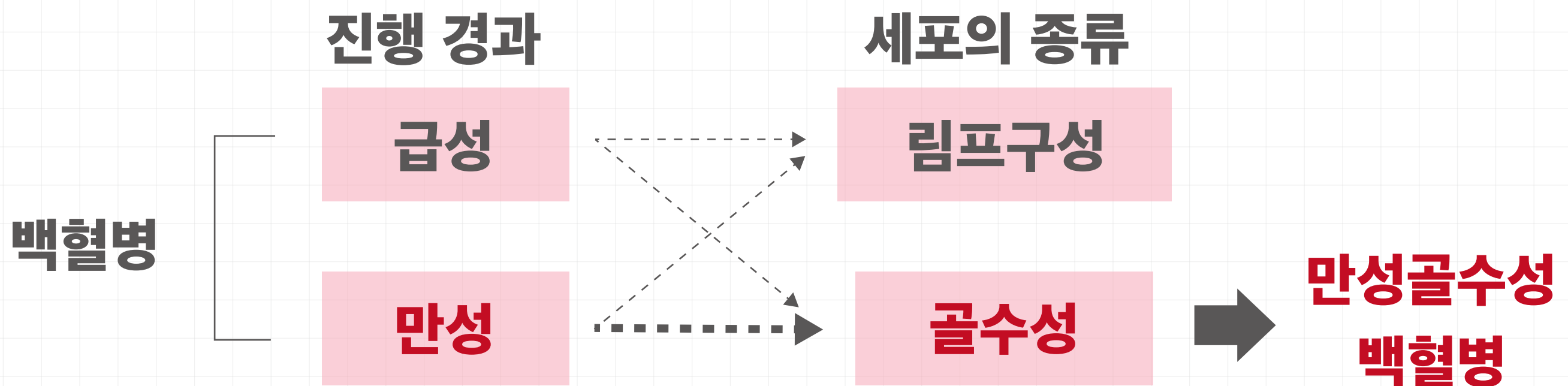


단구

세균,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할 경우, 백혈구의 수가
증가하여 **침입자를 제거**하고 **우리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백혈병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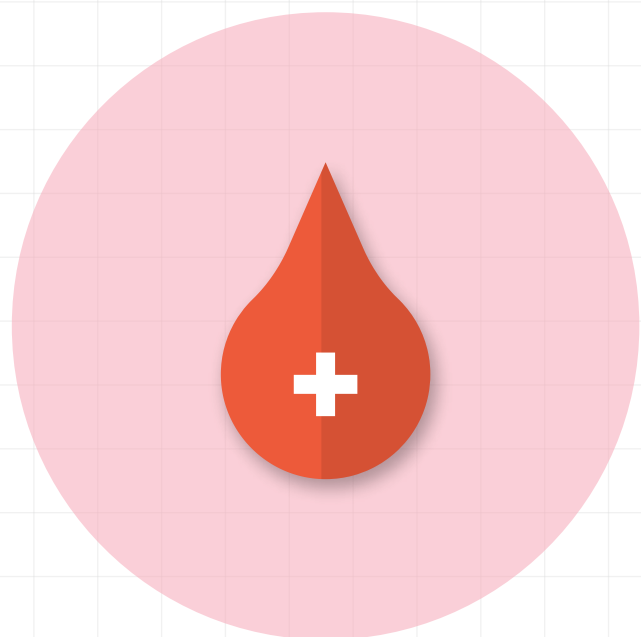
백혈병은 **진행경과**와 **세포 종류**에 따라 나뉘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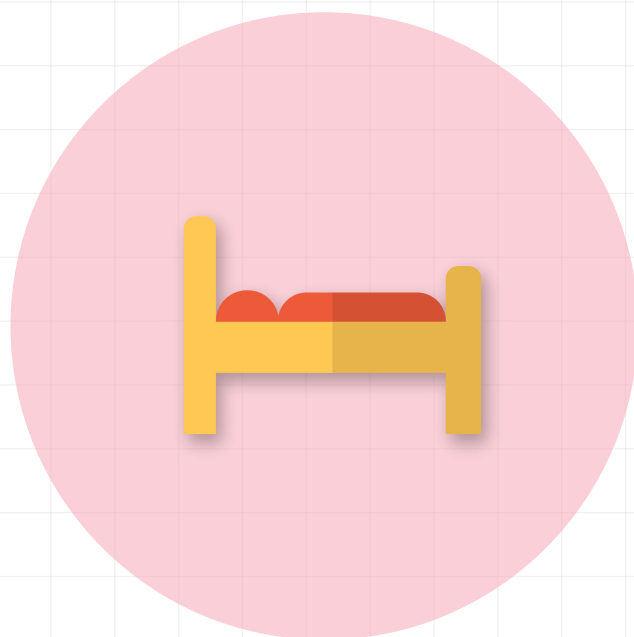
구 분	급 성	만 성
골수성	[급성골수성백혈병] 60세 이상 발생 성인에서 가장 흔한 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주로 성인 에게 발생 국내 희귀 질환
림프성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주로 소아 발생 성인 발생시 예후가 나쁜 편	[만성림프구성백혈병] 진행속도가 매우 느린 편
특징	진행이 매우 빠르고 혈액수치의 변화가 매우 심함	진행이 매우 느림
치료방법	조속한 치료 필수 주사 항암치료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 필요	만성골수성백혈병 : 경구표적항암제 만성림프성백혈병 : 다양한 치료 옵션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초기 증상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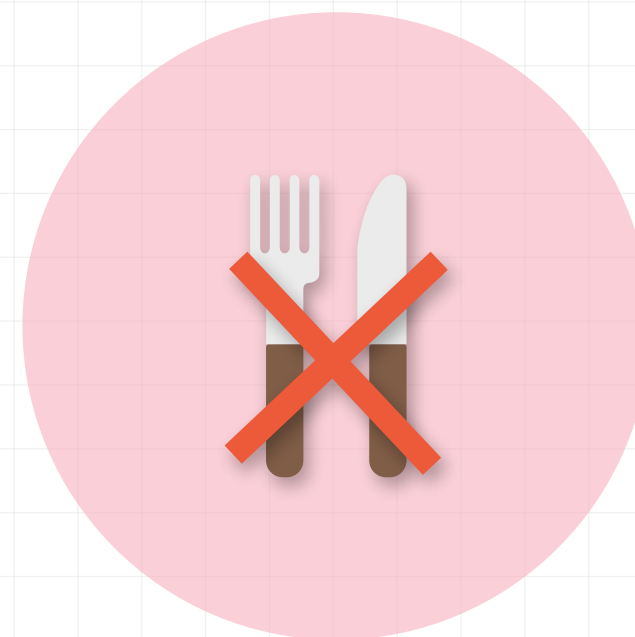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으나
만성기에 들어서면 **빈혈, 좌상복부 통증**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해당 증상 발현 시 병원에 방문해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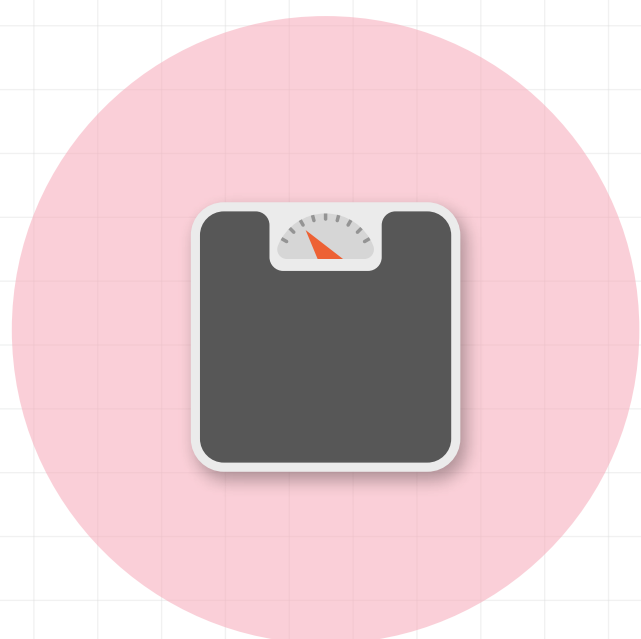
빈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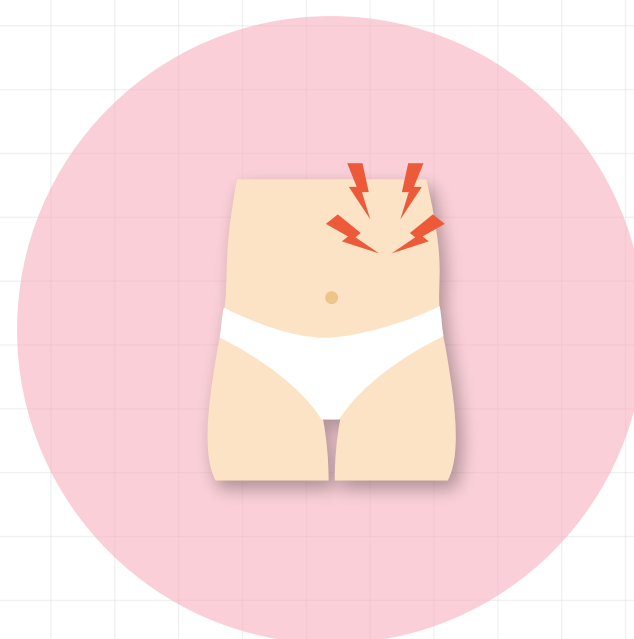
피로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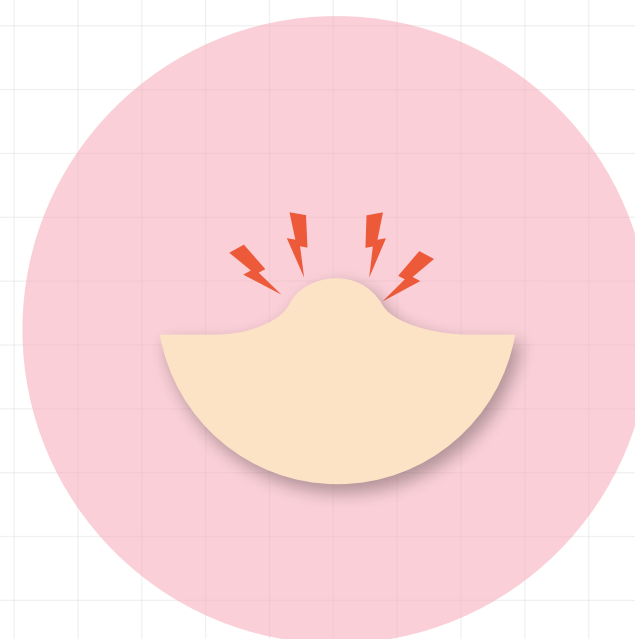
식욕부진



체중감소



좌상복부통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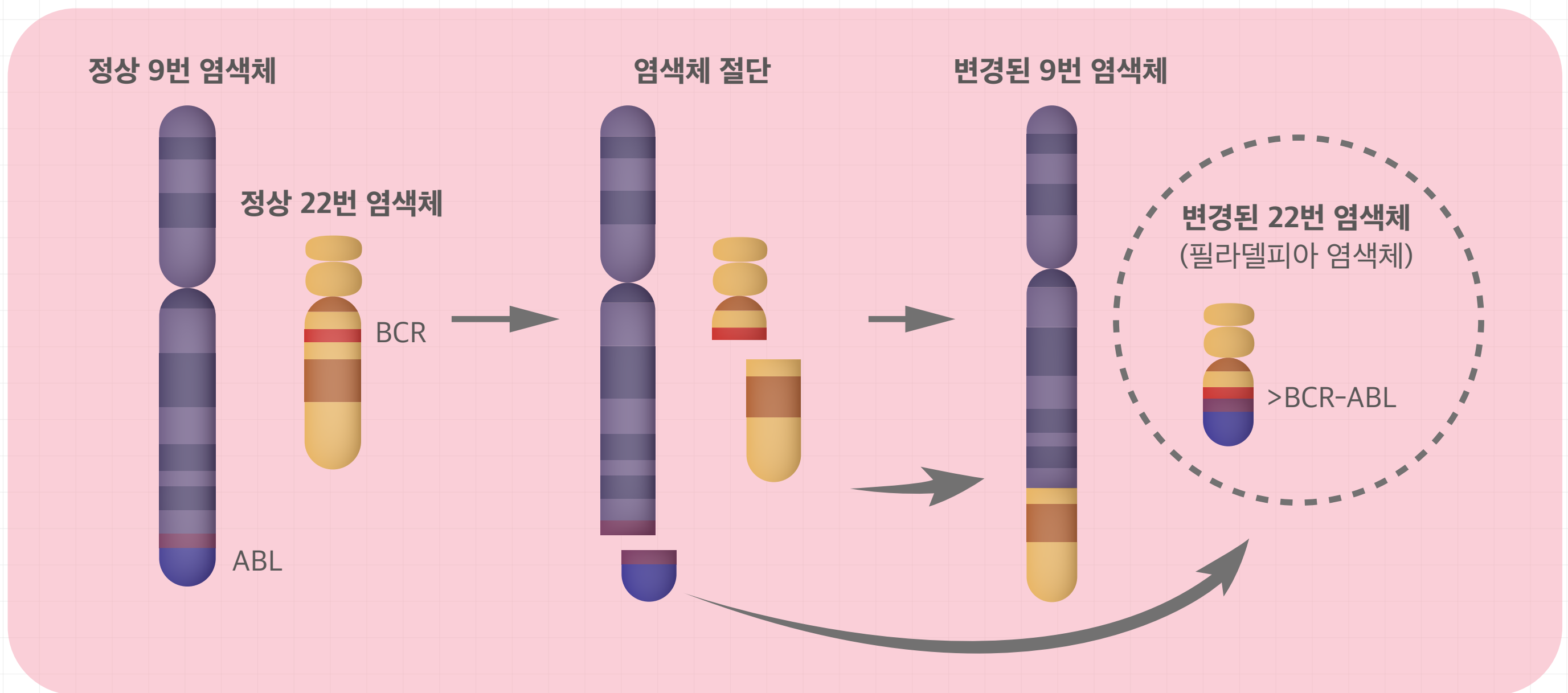


좌상복부종괴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유전되나요?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유전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이 발생하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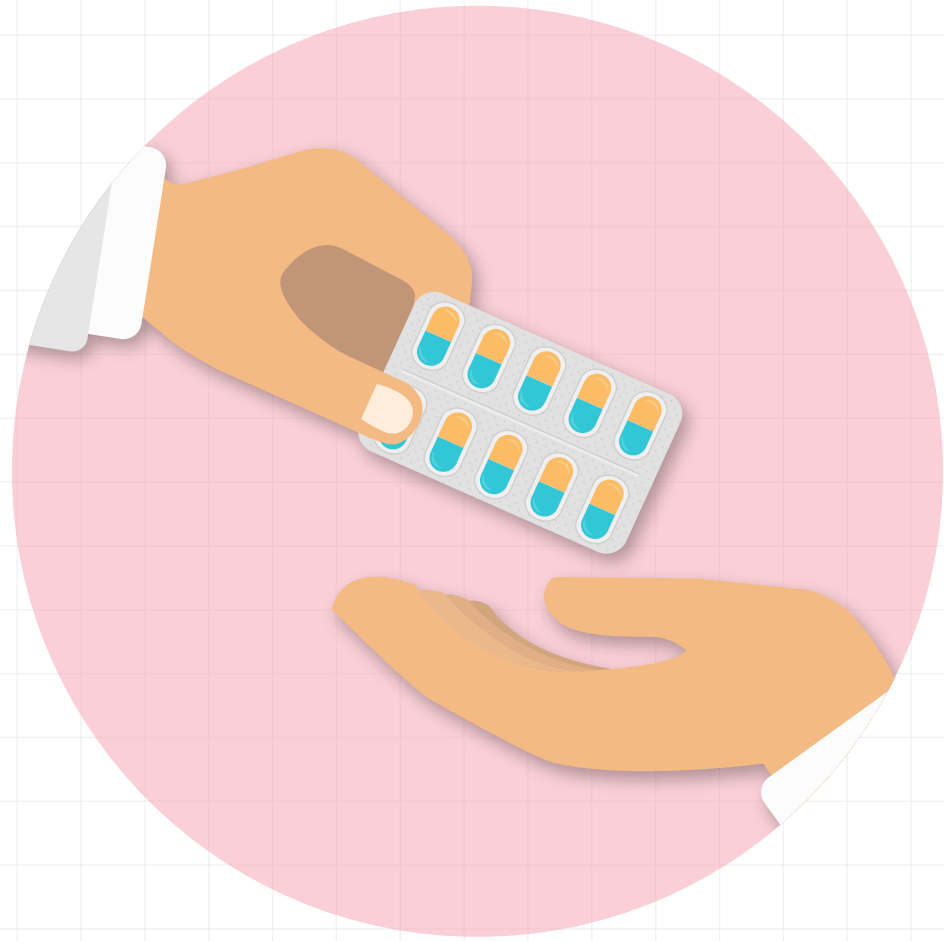
만성골수성백혈병은 9번과 22번 염색체 이상에 의한

필라델피아 염색체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 염색체는 **유전되는 부위와 다른 곳에 위치**하여,

유전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외래에서 치료가 가능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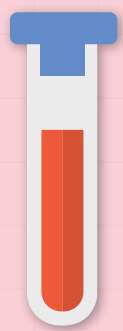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주된 치료가 경구용 표적치료제에
의해 행해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외래에서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처음 발병 시에는 백혈구의 수치가
100,000ul 이상인 경우가 많고,
(정상 : 4,000~10,000ul), 심한 빈혈, 혈소판 증가, 혹은 감소 등의
합병증이 동반되어 **일시적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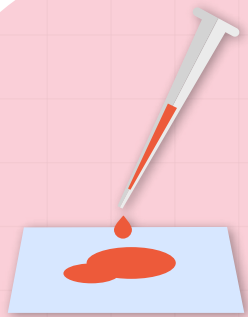
그러나 혈액구 수치가 어느정도 안정화된 이후에는
먹는 약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외래에서 혈액검사를
추적 관찰하면서 투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학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받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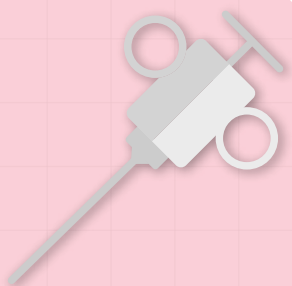
다양한 **혈액검사** 및 **골수 검사**를 통해
만성골수성백혈병 여부를 진단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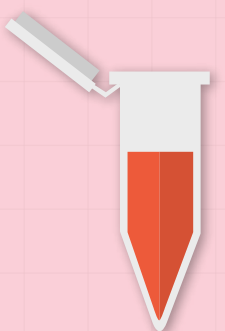
말초혈액 전혈구 검사 : 백혈구, 혈색소, 혈소판 수치 확인
->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는 대부분 심한 **백혈구 증가**를 보임



말초혈액 퍼바른 검사 :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증감 여부 + 모양 확인
->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는 주로 말초혈액에서
미성숙 골수구계 백혈구 세포들이 관찰됨



골수천자 및 생검 : 골수의 조혈모세포 확인
골수세포들 중 골수아구가 10% 미만이면 만성기,
10% 이상이면 가속기, 20% 이상이면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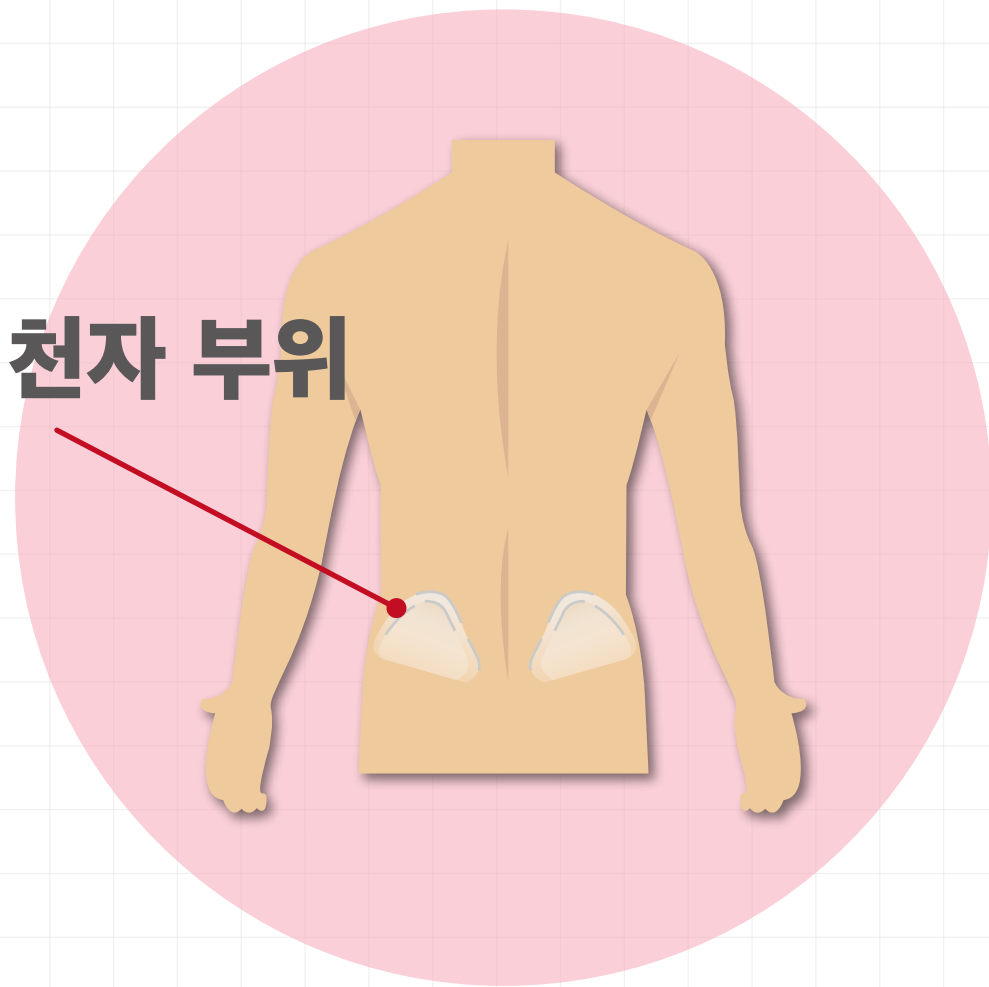
RT-PCR 검사 : 10만개의 정상 세포 중 하나의 **만성골수성백혈병 세포**를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예민한 검사, BCR-ABL 융합 유전자를 확인하여
만성골수성백혈병 확진 판정

반드시 골수검사를 해야 하나요? 부작용은 없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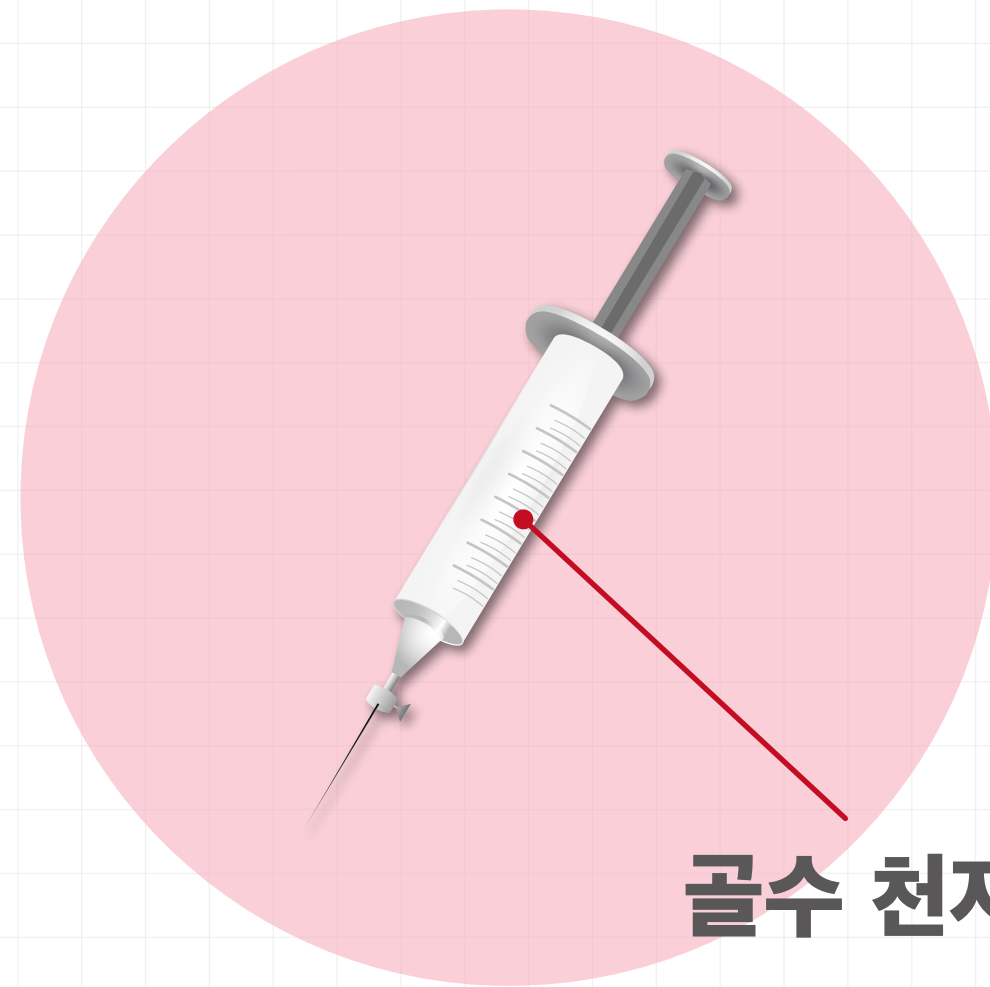
만성기, 가속기, 급성기 별 치료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단계를 확인하기 위해
골수검사가 필요하며 부작용은 없습니다.**

장골능 천자 부위



골수 천자 기구



골수검사는 조직 검사 부위만 부분 마취를 해서 시행하며,
위험도가 높지 않아 외래에서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성기, 가속기, 급성기의 진단기준은 무엇인가요?

골수 내 **골수모구의 양에 따라** 단계가 달라집니다.

만 성 기

*세계보건기구 기준

- 진단 시 **85% 이상**에서 만성기 판정

가 속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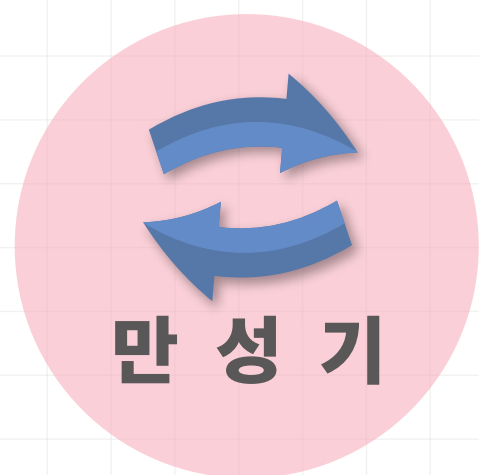
- 말초혈액 백혈구 또는 골수의 모구세포 **10~19%**
- 치료와 무관하게 혈소판 감소가 **100,000 μ l** 미만으로 지속
-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혈소판 증가가 **1,000,000 μ l** 초과로 지속
-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백혈구 증가가 **10,000 μ l** 초과로 지속 혹은 비장 비대가 지속되거나 악화

급 성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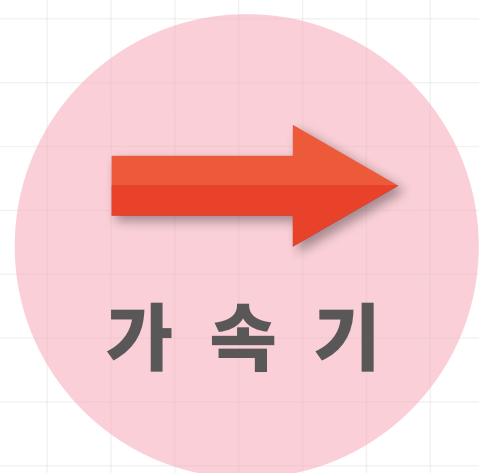
- 말초혈액 백혈구 또는 골수의 유핵세포 중 모구세포가 **20% 이상**
- 골수조직검사서 **모구세포의 거대 병소** 또는 **군집**이 존재

만성기, 가속기, 급성기에 따라 초기 치료방침이 다른가요?

만성기, 가속기, 급성기 각 단계별 **치료방침이 다릅니다.**



- 1차 약제로 타시그나, 스프라이셀, 슈펙트, 글리벡 중 하나 권고
- 글리벡 -> 타시그나, 스프라이셀 -> 아이클루시그 치료 가능
- 1차 약제 모두 보험 적용 가능



- 글리벡 -> 타시그나 or 스프라이셀 -> 아이클루시그
- 1차 약제 보험 적용은 글리벡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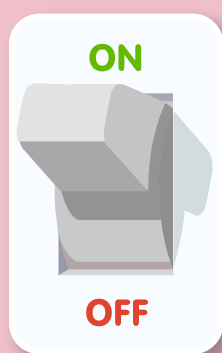


- 글리벡 -> 스프라이셀 -> 아이클루시그
- 약제 치료에 효과가 있더라도 향후 재진행 가능성이 커 조혈모 세포 이식 고려
- 1차 약제 보험은 글리벡만 가능

티로신 키나아제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티로신 키나아제는 체내 효소의 일종으로,
세포들의 기능을 끄고 켜는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의 경우,
필라델피아 염색체에서 생성되는 유전물질이
티로신 키나아제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백혈구 증식을 끊임없이 유도하여 암이 발생합니다.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효과적인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로는
글리벡, 타시그나, 스프라이셀, 슈펙트, 아이클루시그가 있습니다.



약제마다의 복용방법이 다른가요?

약제마다 **복용 방법이 다릅니다.**

구 분



스프라이셀

- 1일 1회, 식사와 관계없이 아침이나 저녁에 복용 가능
- 복용을 잊은 경우 생각난 즉시 복용



타시그나



슈펙트

- 1일 2회, 12시간의 간격을 두고 복용
- 복용 전 2시간 공복, 복용 후 1시간 공복 상태 유지



글리벡

- 1일 1회 복용, 음식 및 다량의 물과 함께 복용 추천
- 복용을 잊은 경우 생각난 즉시 복용



아이클루시그

- 식사와 상관없이 하루 한 번 복용
- 임의로 용량을 바꾸거나 복용을 중단하면 안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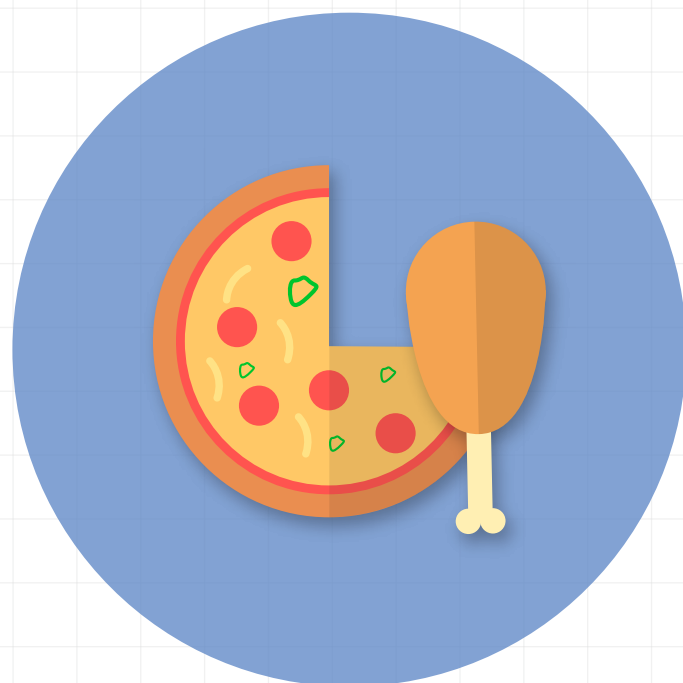
약제 복용 중 꼭 피해야 할 음식이 있나요?

약 복용 시 **자극적인 음식, 자몽·포도주스**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짠 음식

글리벡 복용 시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고,
스프라이셀 복용 시
늑막삼출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

타시그나 복용 시
음식 흡수에 영향을 미쳐
간혹 부작용 발현이나
효과와도 연관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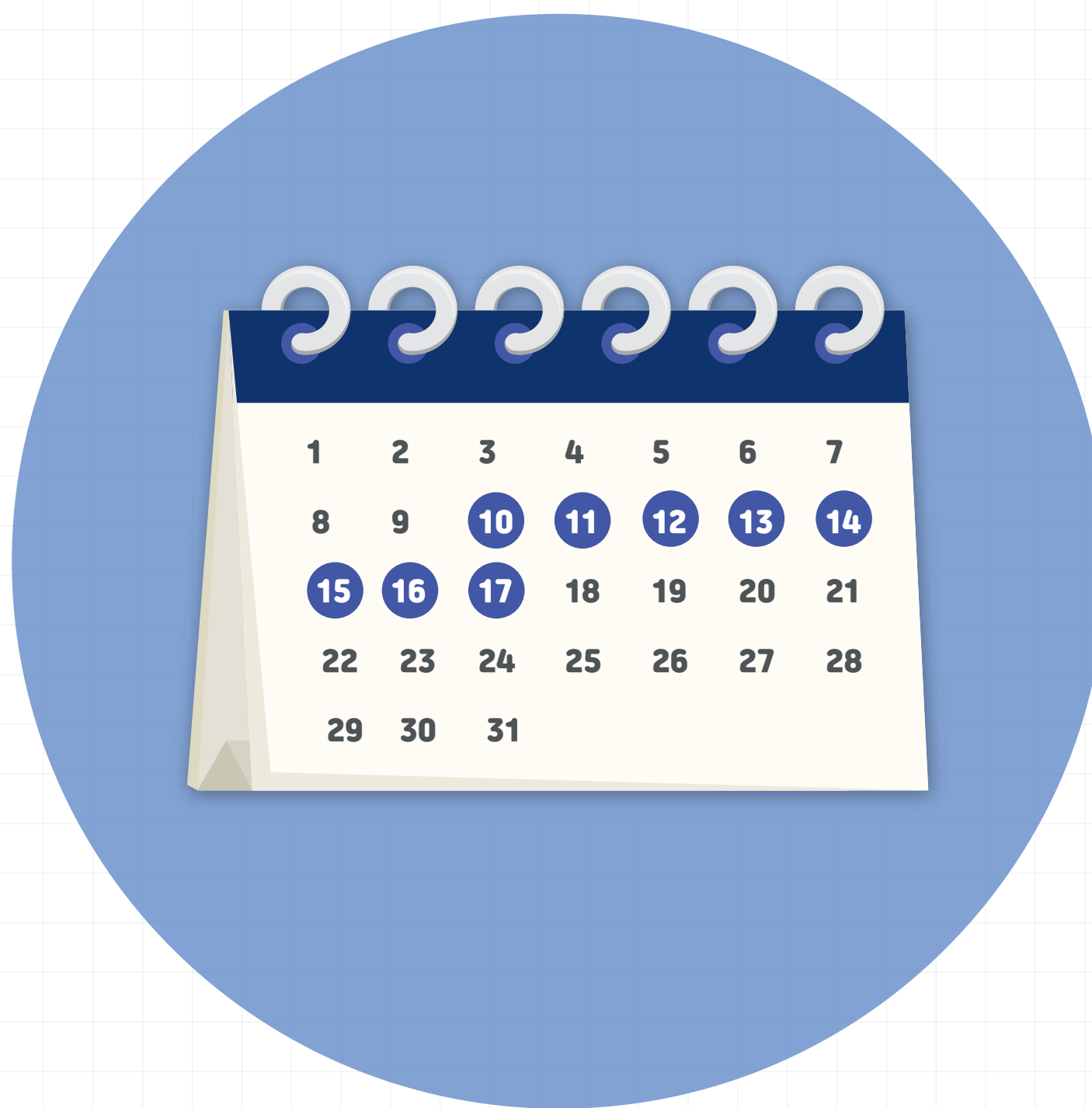
자몽주스·포도주스

글리벡이나 타시그나
치료약제 등의 혈중 약물
농도 변화에 기여할 수 있어
섭취를 자제해야 합니다.

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어야 하나요?

약은 정해진 시간에 복용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약제를 잘 복용하지 않는 것은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를
어렵게 하므로 약제 복용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약제 복용 중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은 가능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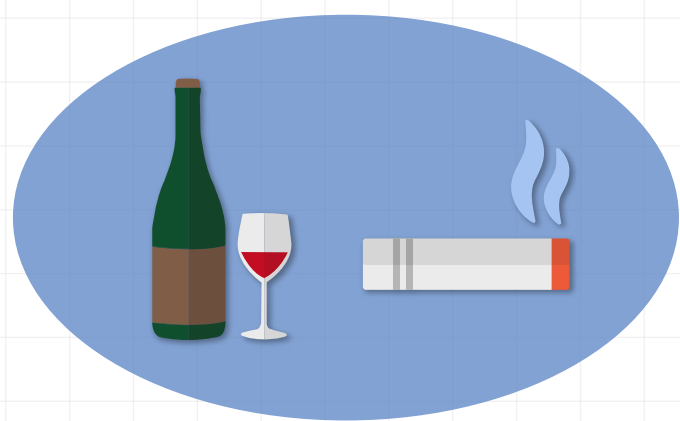
만성골수성백혈병은 **꾸준한 약제 복용으로 정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치료 초기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약제 복용에 큰 문제가 없다면
정상적인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약제 복용 중 술과 담배, 커피, 홍삼, 한약 복용은 자제해야 하나요?

일상생활에 문제 없도록
음식을 **골고루 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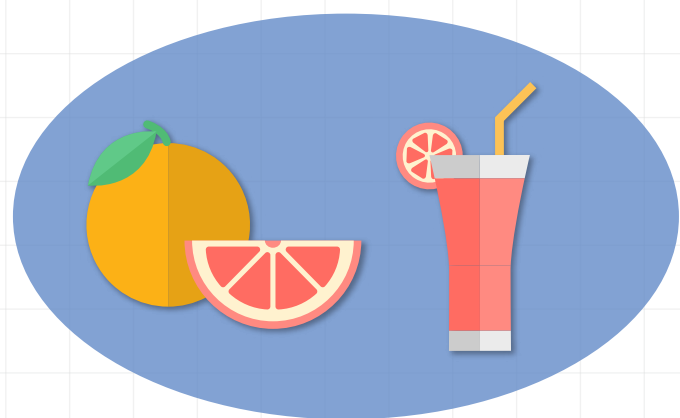
기본적으로 건강을 위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중에는 **금주와 금연**을 권장합니다.



커피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홍삼의 경우에는 **간혹 혈소판 감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복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성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복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한약의 경우 **생약 재료로 인해 여러 성분이 혼합**되어 있고,
그 성분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몽과 자몽주스는 **약제를 복용중**이라면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약 복용 전후 2시간 이내에는 삼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약의 복용을 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의 복용을 잊은 경우에는
생각난 즉시 복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복용시간이 가까울 경우에는
기다렸다가 다음 복용시간에 복용하면 됩니다.

단, 한번에 두 배의 용량을 복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상 세포에 대한 부작용이
배가 될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약 복용 후 바로 토했다면 바로 다시 복용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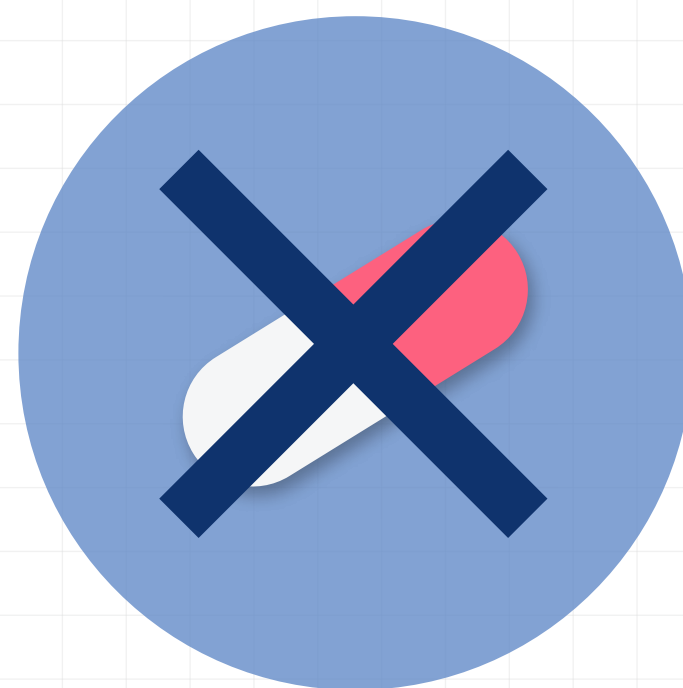
약이 몸에 흡수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 캡슐이 보일 경우

구토물에서 **약 캡슐이
보인다면 다시
복용하기를 권합니다.**

약이 구토물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약 캡슐이 안 보일 경우

**약 캡슐이 없다면
지켜볼 것을 권유
드립니다.**

캡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약이 흡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제 복용 중 다른 병이나 감기에 걸렸을 때 다른 약제와 같이 복용해도 되나요?

타이레놀이나 다른 아세트아미노펜
(해열 진통제) 같은 약을 복용할 때는

하루에 2,000mg이상의 복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래 약을 포함하여 다른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 아스피린이나 아스피린을 함유한 약물
- 독감 예방접종 등을 포함한 예방접종 시
- 케토코나졸, 이트라코나졸,
에리스로마이신, 클래리스로마이신
- 덱사메타손
- 페니토인, 카르바마제핀, 페노바르비탈
- 리팜핀
- 사이클로스포린
- 피모자이드
- 아세트아미노펜을 함유하는 처방약이나 일반약
- 안정제
- 심장, 혈압약(칼슘채널 차단제)
- 심바스타틴 등 고지혈증 치료제
- 와파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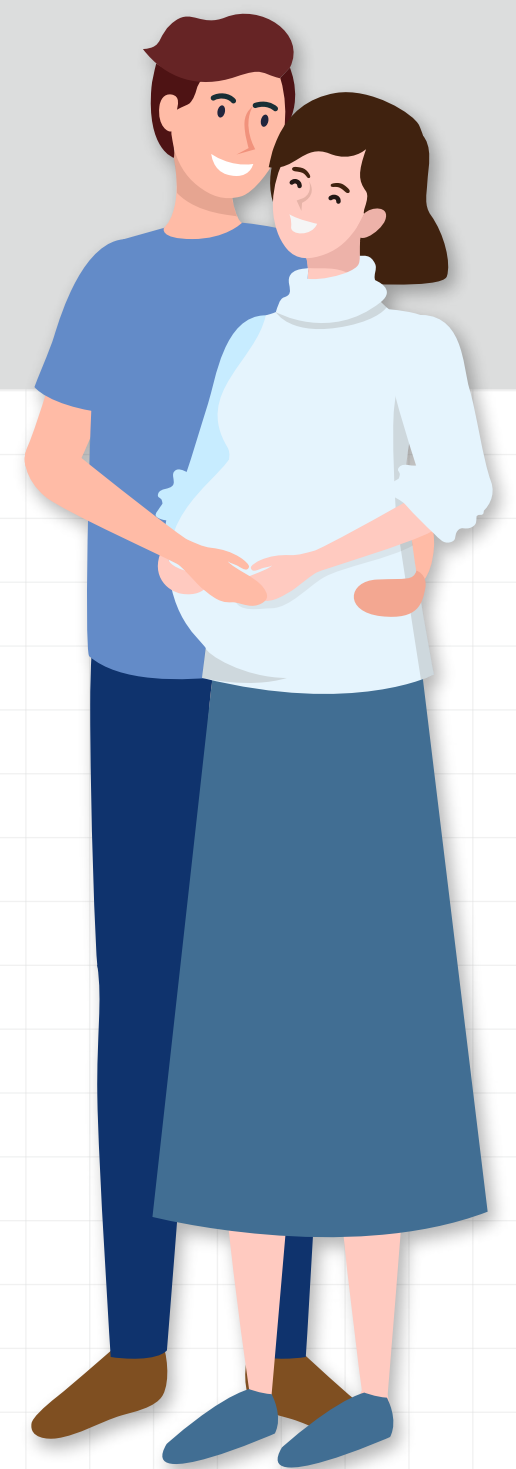
약제 복용 중 임신은 가능한가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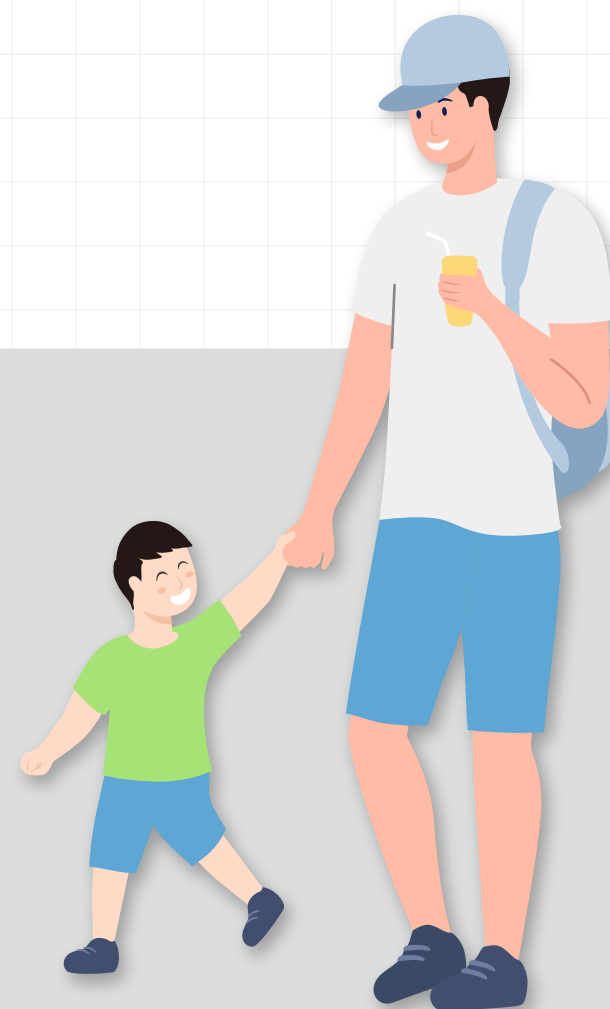
여성의 경우,

약제가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임신 시 약제를 중단해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

약제를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태아의 기형 발생 확률이 높지 않아
약제 복용 중에도 임신이 가능합니다.



환자들이 명심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사안은 무엇인가요?

성공적인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를 위해서는
처방에 따른 **꾸준한 약물 복용**과
병 상태 확인을 위한 정기 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병을 치료하는 주체는 자신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하고
조언을 해드릴 수는 있으나,
결국 약을 복용하고 조언을 따르는 것은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약물 복용과 정기적인 검사로
치료 가능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